

도심 속 피어나는 천년의 사랑 '서동축제'

익산시, 5월 1~3일 중앙체육공원 일원서 개최... 공간 확장·도심 접근성 강화

익산시가 백제 무왕(서동)과 선화공주의 국경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2026 익산 서동축제'를 오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하며 문화도시 익산의 위상을 높인다.

22일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서동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주 무대를 도심권인 중앙체육공원으로 이전하고 신홍공원까지 축제 영역을 대폭 확장한 점이다.

시는 다양한 매력의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구역별로 테마를 운영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축제 환경을 조성했다.

서동축제는 익산에서 태어난 백제 무왕 '서동'이 신라의 '선화공주'와 사랑의 결실을 맺은 역사적 서사를 바탕으로 한 익산의 대표 역사문화축제다. 옛이야기 속 주인공들이 도심으로 걸어 나와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현대판 백제 잔치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무왕제례 △개막식 및 축하공연 △그레이트 씬 퍼레이드 △백제 저자거리 △전국 어린이 서동요제 △전국 서동선발대회 △어린이 놀이터(익스트립존) 등이 마련돼 있다.

이번 축제의 백미인 '그레이트 씬 퍼레이드'는 5월 1일 오후 5시 여양공원을 출발해 중앙체육공원까지 이어진다.

단순 관람을 넘어 다양한 커플들이 행렬에



'2026 익산 서동축제' 포스터

참여하고 현장에서 퍼포즈 이벤트가 진행되는 등 시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도심형 퍼레이드의 정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프로그램 또한 정적인 관람에서 벗어나 젊은 층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참여형 콘텐츠

로 채워진다.

무왕 제례와 서동선발대회 등 전통은 계승하되, 시민 기획단이 직접 운영하는 '로케이션 소개팅'과 어린이 놀이터(익스트립존) 등을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를 지향한다.

아울러 청소년수련관 앞에서는 '로케이션 소개팅' 등 시민 기획단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여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시민참여형 축제로서의 의미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야간 불거리도 한층 화려해진다. 중앙체육공원에는 다양한 조형 장식품이 설치되며, 신홍무지개 정원에서는 매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환상적인 레이저 쇼가 펼쳐져 낮과는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할 전망이다.

시는 축제 기간 중 안전관리, 교통 및 주차 대책, 환경정비, 관광객 편의시설 운영 등 분야별 행정 지원 체계를 강화해 방문객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배석희 익산시 문화교육국장은 "올해 서동축제는 시민이 주체가 돼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진정한 시민 참여형 축제로 준비했다"며 "철저한 안전 관리와 교통 대책을 바탕으로 익산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정읍 출신 신경숙 소설가, 고향 찾는다

정읍시 신태인도서관, 내달 9일 소통의 시간 마련

정읍시 신태인도서관이 오는 5월 9일 정읍 출신의 한국 대표 소설가 신경숙 작가(사진)를 초청해 대표작 '외판방'을 대가로 한 특별한 문학의 장을 마련한다.



이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다. 신경숙 작가는 지난 1985년 '문예중앙'에 단편 '겨울우화'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래 이상문학상과 대한민국 문화예술포럼, 맨 아시아 문학상 등 국내외 굵직한 문학상을 휩쓸며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거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서정적이고 섬세한 문체로 시대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신경숙 작가는 이번 만남에서 지난 1999년 출간된 대표작 '외판방'의 30주년 개정판을 참여자들과 함께 낭독하며 깊이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한 시대를 묵묵히 살아왔던 가난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어떻게 절망하고 또 사라져야 했는지, 나아가 우리 삶에서 문학이 지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

주요 저서로는 최근 재출간된 '외판방'(2025)을 비롯해 '아버지에게 갔었어'(2021), '모르는 여인들'(2011), '얼마를 부탁해'(2008)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남기며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작가와의 만남 참여 접수는 정읍시립도서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행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태인도서관 담당자(063-539-6442)에게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시립합창단, '승리, 영광 그리고 사랑의 노래' 기획 공연

전주시립합창단(예술감독 겸 지휘자 김철)은 4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 덕진예술회관에서 기획 공연인 '승리, 영광 그리고 사랑의 노래'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국립합창단에서 38년간 소프라노로 활동한 정영숙 객원지휘자가 지휘를 맡아, 오랜 무대 경험과 깊이 있는 음악 해석을 바탕으로 전주시립합창단과의 완성도 높은 앙상블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 프로그램은 △요한 아돌프 하세와 프란츠 요세프 하이든의 '테데움'을 시작으로 △밥 칠컷의 '현대의 글로리아' △김효근의 '첫사랑' △김소월 시에 박지훈이 작곡한 '진달래꽃' △허립 시에 윤학준이 작곡한 '마중' 등 다양한 합창곡으로 구성된다. 또한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 중 'Singin' in the Rain' △베사메 무쥔 △영화 '시스터 액트' 중 'Happy Day' 등 친숙한 영화음악과 대중음악을 합창으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등 장르를 넘나드는 풍성한 무대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공연 입장권은 무료로, 나루컬처 누리집 또는 전화(1522-6278)로 예약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장수군, '노래하는 장수하늘소 봄에 피는 실내악 페스티벌' 성료

장수군은 지난 21일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노래하는 장수하늘소 봄에 피는 실내악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예술단은나라의 첫 번째 무대로 마련됐으며, 지역의 우수 예술단체를 육성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연은 지휘자 이태정장이 이끄는 새롭게 구성된 앙상블 무대로 진행됐으며 100분간 클래식과 영화음악, 현대음악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200여 명의 관람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장수=고관호 기자

익산시립무용단, 창단 30주년 '선물'

5월 8일 익산예술의전당서 정기공연

익산시립무용단이 창단 30주년을 맞아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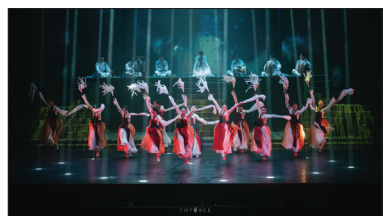
시는 익산시립무용단(예술감독 최석열)이 오는 5월 8일 오후 7시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49회 정기공연 '선물(贈物)'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어버이날을 맞아 지난 30년간 무용단을 응원해 온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하고자 마련됐다.

공연 제목인 '선물(贈物)'은 '정성껏 차린 음식을 올린다'는 뜻을 담고 있다. 오랜 시간 시민과 함께해 온 무용단이 그동안 받은 성원에 보답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특히 이번 무대에는 익산시립무용단(예술감독 김익주)이 함께해 사물놀이 반주로 전통의 흥과 깊이를 더한다. 또 전통무용에 전장막과 아날로그 감성 연출을 접목해 전통춤 특유의 깊은 정취를 선사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공연은 총 4부로 구성돼 약 80분간 진행된다. 1부 '운음(繪音)'에서는 훈령무와 태평천무로 힘찬 시작을 알리고, 2부 '풍류(風流)'는 한량무와 율하정인으로 전통의 맛을 전한다.

이어 3부 '염원(念願)'은 탈춤과 강강술래로 공동체의 정서를 풀어내며, 4부 '선물(贈物)'은 다채로운 전통춤이 어우러져 흥겨운 마무리를 장식한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5세 이상 관람할 수 있다. 예매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익산 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출판진흥원, 확장형 전자출판물 제작 지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한 차세대 출판 콘텐츠 육성에 나선다. 출판진흥원은 '2026년 확장형 전자출판물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출판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상과 음성, 상호작용 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전자출판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확장형 전자출판물은 영상, 오디오, 움직임 이미지, 상호작용 기능 등을 통해 독자가 콘텐츠

츠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국내 출판사로, 필요 시 개발사와 협업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선정된 5개 출판사에는 과제당 최대 5천만 원의 제작비가 지원된다. 또한 제작 과정 전반에 걸쳐 중간·최종 점검과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완성도를 높이고, 사업 종료 이후에는 성과 공유를 통해 관련 생태계 확산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은 4월 17일부터 오는 5월 7일 오후 4시까지 전자우편으로 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